

충남도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이희경 |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총 면적 8,598 km²로 전 국토 면적 99,601km²의 8.6%를 점유하고, 인구 197만명중 어업 인구는 26,267명(9,322가구)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53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304km²의 광활한 갯벌을 보유하고, 특히 만(灣)과 도서(島嶼)가 발달한 청정해역으로 수산과 해양관광지로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특히 수산동식물의 보고(寶庫)이자 천혜의 산란장인 천수만과 가로림 만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이 전국 각지를 연결하고 있어 해상 물류기지와 수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어촌은 유엔해양법 발효, WTO 출범 이후의 수입 수산물의 증가와 어장축소,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이어져 어업경영이 악화되었는가 하면 어촌인력의 노령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해양수산 비전을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건설**」에 두고 바다는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어업인은 자립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어촌은 수산업과 다양한 생활이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어업 및 유통구조 개선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미래 어촌지도자 육성 ▲항만개발·육성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충남도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약 2조 1,345억원을 투자(2005년 52개사업 357억원)하여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환경 조성과 어촌을 생산·주거·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다기능·복합공간으로 개발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2004년 「바다청결 원년의 해」에 이어 2005년을 「바다청결 2차년의 해」로 정하고, 어장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수거(375톤 1,125백만원), 해양쓰레기수매(2,000톤 500백만원), 어장정화사업(914ha 738백만원), 해양쓰레기수거장비구입(3대 700백만원), 연안 환경을 개선·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8개소 2,600백만원), 관광낚시객에 대한 무공해 환경추보급, 자율을 통한 바다 청소의 날 운영(월 2회), 1社 1沿岸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해양정화·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어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 외 소득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1권역 1,750백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3마을 1,500백만원)과 어촌관광종합계획에 따라 관광기능을 더한 다기능어항 3개소(500억원), 어촌관광단지 1개소(60억원)를 2009년까지 조성하여 지역 수산물 축계, 어촌문화·민속, 유적지 등과 연계한 어촌체험·관광벨리(Valley)를 조성하여 생산·주거·관

광이 어우러진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700ha 4,500백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54백만미 734백만원)으로 자원을 증강시켜 나가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40척 4,400백만원),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 등 내수면어업개발에 590백만원, 김유기산공급 등 수산증양식사업에 1,529백만원, 어촌지도자 육성에 1,467백만원, 친환경어선대체 등 어로시설현대화에 3,461백만원을 투자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지속 확대하여 2005년까지 25개 공동체, 2010년까지 100개 공동체를 육성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어업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특히「서해 갯벌형 바다목장」사업(8,500ha)에 2010까지 388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소비자들의 기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지향형 수산물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667백만원, 수산물직매장 2개

소, 800백만원을 투자하고, 2013년까지 수산물유통시설의 콜드체인시스템화(6개소), 위판 및 직매장시설 확대(16개소), 수산물유통센터건립(4개소), HACCP시설을 갖춘 선어회가공공장(3개소)등을 시설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는 수산물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증가하는 어항수요에 대처하고 대 중국 교역의 거점 항만개발을 위하여 어항·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시설 위주의 어항개발에서 해양관광·레포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시기를 앞 당겨 금년에 15개 지방어항에 211억원을 투자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에 대하여는 지역 특성과 수요 중심으로 개발, 국가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하여 보령신항(11선석)을 대 중국 교역대비 동북아 경제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고, 대산항(24선석)은 서해안 중부권 거점 종합항만으로, 장항항(2선석)은 배후산업단지 화물운송 거점항만으로, 태안항(2선석)은 태안화력발전소 연료수송 지원항만으로, 평택·당진항(41선석)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을 분담하는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충남도는 긴 리아스식 해안과 완만하고 너른 갯벌, 수산물의 보고(寶庫)이자 산란장인 만(灣),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 국립해양공원의 청정해역, 어촌민속·문화 등 수산·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Heart of Korea)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만6천여 어업인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계획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10년후 어업인소득 3천4백만원 수산물 생산 12만 2천톤, 항만물동량 10만 3천톤 육박 등 살기좋은 어촌,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